

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
| 작 성 자 | 파일팀       |
| 작성일자  | 2011.8.10 |

## 태풍 무이파에 따른 배 생산량 속보

### □ 무이파(MUIFA)의 특징

- 지난 6월 제5호 태풍 ‘메아리(MEARI)’에 이어 8월 7일부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9호 태풍 ‘무이파(MUIFA)’가 서해로 북상하였음.
- ‘메아리’는 중부지방 장마전선과 맞물려 많은 비를 뿌렸고 ‘무이파’는 ‘메아리’에 비해 기압이 낮고 풍속이 강해 바람에 의한 피해가 컸음.

### □ 배

- 추석 성수기에 배가 주로 출하되는 지역은 충남 천안·아산, 전남 나주·영암, 울산 광역시, 경남 진주·하동, 경북 상주 등임.
- 전남 나주·영암은 태풍 이전 기상이 좋았고, 흑성병 등 병충해가 없어 생육상황이 양호하였음. 이에 따라 나주 배 생산량은 작년대비 15~20%, 영암은 15%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(7월 29일 농업관측센터 조사치).
- 8월 7~8일 사이 강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주산지 일부지역에서 발생함.
- 전남지역의 경우 무이파로 인한 배 낙과 피해면적이 8월 8일 오후 800ha, 8월 9일 오전 916ha, 8월 10일 오전 현재 957ha로 집계되었음(전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).
- 지역별 배 재배면적 및 낙과율(8월 9일 오전)
  - <표 1>은 태풍 피해가 심한 영남, 호남 주산지에 대한 농업관측센터 자체조사 결과임.
  - 전남 나주·영암은 과원의 입지에 따라 농가마다 낙과율 차이가 크게 발생함. 영암 신북면, 나주 세지면과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.

표 1. 배 주산지 태풍 무이파 피해

단위: ha, %

| 지역 | 시군 | 재배면적  | 낙과율   | 지역 | 시군 | 재배면적  | 낙과율  |
|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---|------|
| 영남 | 울산 | 1,223 | -     | 호남 | 나주 | 2,450 | 12.4 |
|    | 상주 | 1,079 | -     |    | 영암 | 488   | 12   |
|    | 진주 | 703   | 10~15 |    | 김제 | 179   | -    |
|    | 김천 | 331   | -     |    | 완주 | 142   | 7    |
|    | 하동 | 263   | 10%미만 |    | 순천 | 220   | 15   |

주: 농업관측센터 8월 9일 모니터 조사치.

- 농업관측센터 모니터 조사치(8월 9일 오전)를 기준으로 생산량 재추정  
- 낙과율을 토대로 피해면적 환산함.

표 2. 배 생산량 추정

단위: 천톤

|           | 8월 5일 월보 전망(A) | 태풍 후 전망(B) | 차이(A-B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2011년 생산량 | 337.8          | 324.7      | 13.1    |
| 9월 출하량    | 81.1           | 78.0       | 3.1     |
| - 신고 출하량  | 62.9           | 60.5       | 2.4     |
| - 원항 출하량  | 11.5           | 11.1       | 0.4     |

주: 생산량은 비상품과(가공품)를 제외하였음. 9월 출하량에는 신고, 원항 이외에 기타 품종 포함됨.

- 태풍 피해 면적에서 생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(표 2), 올해 배 생산량은 작년 대비 5% 많은 32만 5천톤 가량으로 전망됨.
- 향후 추가 낙과로 인한 감산요인이 있는 반면, 과 비대에 따라 과일 중량이 늘어나는 증산요인도 있어 생산량 전망치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.

※ 8월 10일 오후 현재도 시·군 단위 낙과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8월 19일경 피해 집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.

## □ 기타 과일

- 사과: 충북 괴산은 재배면적 440ha 중 5ha 낙과 피해. 충북 영동은 414ha 중 2~3% 낙과. 전북 장수는 660ha 중 57ha, 전북 무주는 홍로 재배면적 일부 낙과 피해.
- 복숭아: 전남 화순 재배면적 183ha(호남지역 재배면적 중 17%) 중 10~30% 피해 발생.
- 감귤: 제주 전역에서 하우스시설 피해가 발생. 노지온주는 가지 및 열매에 상처가 발생하여 생산량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향후 품질 저하가 우려. 태풍 이후 궤양병, 검은점무늬병 발생 우려.
- 단감: 일부 지역에서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생산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듯.